

Effects of the Team Trust Element of Rugby Players on Self-Determination Motive and Team Performance

Jin-Wook Lee*, Sung-Soo Park**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effects of team trust element of rugby players on self-determination motive and team performance. As for the study subjects, rugby players participated in the 97th national athletic meet in 2016 were selected. As for data collection, in the total of 221 copies of samples were col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182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Using SPSS 18.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obtained.

First, as for the effects of rugby players' team trust element on self-determination motive, it was found that team trust influenced external moderation, internal moderation, integrated moderation and identification moderation, and teammate trust influenced internal moderation, integrated moderation and identification moderation. Second, as for the effects of rugby players' team trust element on team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team trust and teammate trust influenced team performance. Third, as for the effects of rugby players' self-determination motive on team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integrated moderation and internal moderation influenced team performance.

▶ Keyword: Team trust element, Self-determination motive, Team performance

1. Introduction

럭비 스포츠는 “One for all, All for one” 이라는 큰 정신 아래 희생, 협동, 인내의 3대 정신을 실천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성공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각 포지션 별로 과제 수행과 팀 패턴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팀워크가 요구되는 상호의존적 종목이다[1].

스포츠 팀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 바로 신뢰라고 할 수 있으며[2-3], 팀 신뢰는 팀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정도를 말하며[4], 상호간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된다[5].

팀 스포츠는 팀 내 구성원들의 협력 하에 연습을 통해 시합에 임하는 특성상 팀 구성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팀 수행 향상을 가져올 수 없으며 무엇보다 팀 구성원간의 신뢰가

중요하다[6]. 신뢰를 통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결국 운동의 효과와 효율, 유대감, 결속력 등은 운동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이와 함께 팀의 신뢰는 팀 수행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Hackman(1987)[8]은 팀 수행을 팀의 목표를 달성하고 팀에 부여되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성하여 팀 업무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팀 수행에 대한 팀 신뢰의 영향력을 지지하고 있다[6][9].

한편, 신뢰에 대한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변수는 동기이다. 럭비선수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럭비에 참여하는 것일까? 이에 따른 개인의 동기는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10]. 동기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론에 따라 활동 자체의

• First Author: Jin-Wook Lee, Corresponding Author: Sung-Soo Park

*Jin-Wook Lee (rugby14@hanmail.com), Dept. of Exercise Prescription Rehabilitation, Dankook University

**Sung-Soo Park (padi@swc.ac.kr), Dept. of Leisure Sports, Suwon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8. 05. 28, Revised: 2018. 07. 30, Accepted: 2018. 08. 11.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활동 자체보다는 활동이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 그리고 자기결정의 완전한 결핍상태를 의미하는 무동기(amotivation)로 구분된다[11-12].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 이론가들은 이분법적 유형으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분류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Deci와 Ryan(1985)[11]은 내재적 동기이론을 자기도식(self-schema)개념의 구심점으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발전시켰다[13]. 초기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양극단의 위치에서 대립적인 관계로 설명되었다[14]. 하지만 1980년대 들어와서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대립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15-16]가 발표되었으며, Deci & Ryan(1985)은[11]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성의 수준변화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인지평가이론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바람직한 동기유형이기는 하지만 모든 외적 보상이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기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에서는 동기를 내·외적의 이분법적이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17]. 이처럼 연속 상에 각기 다른 자기결정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태를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고 하며 조절의 유형에 따라 행동을 내재화하고 통합하는 정도는 달라진다. 자기조절의 유형은 자기결정성의 개입이 가장 낮은 무동기(amotivation)와 네 가지 외재적 동기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내사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동일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조절(integrated regulation)과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내재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 순으로 되어있다.[11][18]. 자기결정성동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가 자의인지 외부에 강요된 의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팀 운동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스포츠인 럭비종목에서는 두 변인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6년 전국체전에 참가한 럭비 선수들의 팀 신뢰요소와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스포츠 현장에서 효율적인 팀 운영에 기여하며 상대적으로 학문적 연구가 부족한 럭비 종목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경험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럭비선수들이 지각하는 팀 신뢰요소는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럭비선수들이 지각하는 팀 신뢰요소는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럭비선수들이 지각하는 자기결정동기는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Methods

1. Subject of Study

본 연구는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9개의 팀 럭비선수들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하였다. 표집은 총 192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10부를 제외한 182부를 최종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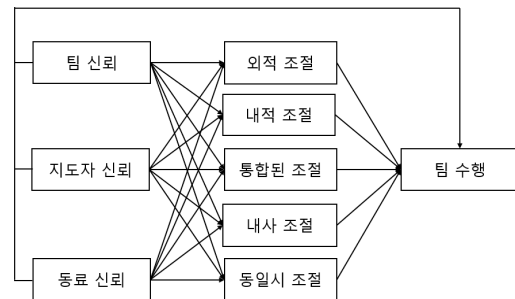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Measuring Instrument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개인적 특성 4문항, 팀 신뢰요소 16문항, 자기결정동기 21문항, 팀 수행 5문항 총 4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팀 신뢰요소 측정도구는 전희원(2009)[19]과 Mach 등(2010)[3] 및 허진영, 마해영(2013)[6]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은 재미(5문항), 팀신뢰(5문항), 지도자신뢰(5문항), 동료신뢰(6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팀 수행 측정도구는 Dirks(2000)[21]와 Mach 등.(2010)[3] 및 허진영, 마해영(2013)[6]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은 5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자기결정동기 측정도구는 박병기 등(2005)[20]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은 외적조절(5문항), 내적조절(4문항), 통합된 조절(4문항), 내사조절(4문항), 동일시조절(4문항)의 5요인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vision		N	%
Team	UT	108	59.3
	BST	74	40.7
Age	19~24	127	69.8
	25~30	38	20.9
	31	17	9.3
Position	Forward	92	50.5
	Back	90	49.5
Sum		182	100

UT : University, BST : Business Sport Teams

Table 2. Team trust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order	Team trust,	Coach Trust	Co-work trust	covariance rate (h2)
우리 팀은 선수관리에 대한 방침과 조치에 믿고 따를 만하다.	.829	.152	.204	.752
우리 팀은 선수들의 의견을 충족시키려고 성실히 노력한다.	.716	.206	.240	.614
우리 팀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한다.	.714	.342	.170	.656
우리 팀은 구성원들이 목표설정에 도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704	.369	.162	.658
우리 팀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	.673	.358	.254	.645
우리 팀 감독(코치)은 선수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는다.	.223	.812	.064	.713
우리 팀 감독(코치)의 지도력을 나는 굳게 믿는다.	.298	.785	.265	.774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팀 감독(코치)을 나는 지지한다.	.310	.779	.303	.795
우리 팀 감독(코치)에 대해 나는 강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	.343	.743	.287	.752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료들은 나를 도와 줄 것으로 믿는다.	.124	.314	.815	.778
동료들의 역량을 나는 충분히 믿는다.	.176	.196	.780	.677
평소 대부분의 동료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 한다고 나는 믿는다.	.406	.145	.737	.729
내가 만일 어려움을 당하면 동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076	.402	.723	.690
동료들은 감독(코치) 없이도 열심히 연습한다.	.361	-.045	.602	.495
Characteristic value	3.358	3.202	3.168	
%Var	23.987	22.873	22.631	
%Cumulative frequency	23.987	46.860	69.491	
Cronbach's α	.874	.891	.844	

KMO=.900, $\chi^2=1586.959$, $df=91$, $Sig=.000$ I : Team trust, II :Coach Trust, III :Co-work trust

Table 3. Self-Determination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order	A	B	C	D	E	covariance rate (h2)
내가 럭비를 그만두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898	-.131	.040	.149	.007	.848
다른 사람으로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890	-.158	.016	.199	-.057	.861
럭비를 그만두면 곤경을 처할 것이기 때문에	.848	.089	-.078	.053	-.123	.752
주위 사람들이 나를 럭비를 하도록 몰아 부치기 때문에	.843	-.199	-.088	.170	.028	.787
내가 럭비하기를 바라는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712	-.090	.157	.344	.099	.667
럭비를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143	.852	.171	-.002	.217	.822
럭비를 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123	.850	.285	.086	.228	.879
럭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138	.819	.369	.088	.097	.844
럭비 자체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101	.775	.314	.013	.147	.776
럭비 자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000	.234	.830	.066	.147	.769
럭비를 잘하는 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092	.185	.796	.066	.209	.724
럭비는 내 가치관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045	.309	.740	-.018	.308	.740
럭비는 나의 생활에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098	.366	.681	.104	.072	.623
내가 럭비선수로서 노력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46	.069	.119	.867	-.018	.793
럭비선수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080	.216	.075	.839	.062	.766
럭비를 잘해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선수로 생각할 것 같아서	.340	-.057	.172	.719	.119	.680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서	.244	-.064	-.121	.677	.105	.548
운동을 해야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049	.426	.140	.011	.786	.822
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배우는데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063	.377	.278	.101	.733	.771
연습을 잘 해야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057	.084	.395	.205	.697	.694
Characteristic value	3.833	3.526	3.035	2.732	2.040	
%Var	19.167	17.628	15.175	13.659	10.202	
%Cumulative frequency	19.167	36.795	51.970	65.629	75.832	
Cronbach's α	.914	.932	.859	.829	.816	

KMO=.874, $\chi^2=2573.907$, $df=190$, $Sig=.000$ A : External regulation; B : Internal regulation; C : Integrated regulation; D : Introjection regulation, E : identification regulation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ing Instrument

본 조사도구로 활용된 설문지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스포츠 심리학 전공 교수 및 럭비전문가와 함께 설문지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럭비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수행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와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검증 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16문항으로 구성된 팀 신뢰요소 요인 척도에서 문항 2문항(지도자신뢰 6번, 동료신뢰 16번),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결정동기요인 척도에서 1문항(동일시조절 9번)이 .50이하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어 삭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팀 신뢰요소 설문지의 타당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팀 신뢰요소 설문지의 타당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고 (KMO=.900, $\chi^2=1586.959$, $df=91$, $Sig=.000$), 각 요인의 적재치는 팀 신뢰는 .673~.829, 지도자신뢰는 .743~.812, 동료신뢰는 .602~.815로 나타났으며, 누적 분산율은 69.491%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는 팀 신뢰 .874, 지도자신뢰 .891, 동료신뢰 .844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자기결정동기 설문지의 타당도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결정동기 설문지는 5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고 (KMO=.874, $\chi^2=2573.907$, $df=190$, $Sig=.000$), 각 요인의 적재

치는 외적조절은 .712 ~ .898, 내적조절은 .775 ~ .852, 통합된 조절은 .681 ~ .830, 내사조절은 .677 ~ .867, 동일시조절은 .697 ~ .786로 나타났으며, 누적 분산율은 75.832%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는 외적조절 .914, 내적조절 .932, 통합된 조절 .859, 내사조절 .829, 동일시조절 .816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팀 수행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분류되었고, 팀 수행의 신뢰도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884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Table 4. Team performance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Cronbach's α
Team performance	.884

4. Data Process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의 관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과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 동기 및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Results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 하위변인은 자기결정동기와 팀 수행 변인에 대체로 정(+) 또는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값이 -.163-.654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80보다 작게 나타났다.

2. The influence of team faith element on self-determined motivation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Table.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팀 신뢰요소는 외적조절을 예측하는데 3.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 신뢰, 동료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팀 신뢰요소는 내적조절을 예측하는데 33.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팀 신뢰요소는 통합된 조절을 예측하는데 18.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5. Team trust Factor, Self-Determination Factor and Team performance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Team trust	Coach Trust	Co-work trust	External regulation	Internal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Introjection regulation	Identification regulation	Team performance
Team trust	1								
Coach Trust	.654**	1							
Co-work trust	.576**	.554**	1						
External regulation	-.163*	-.032	-.094	1					
Internal regulation	.565**	.406**	.438**	-.219**	1				
Integrated regulation	.377**	.329**	.386**	-.003	.616**	1			
Introjection regulation	.084	.149*	.153*	.432**	.101	.179**	1		
Identification regulation	.553**	.498**	.541**	-.041	.610**	.595**	.216**	1	
Team performance	.384**	.265**	.336**	-.122	.373**	.461**	-.135*	.327**	1

**p<.01, *p<.05

Table 6. The effects of team faith element on self-determined motiv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External regulation				Internal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B	β	t	VIF	B	β	t	VIF	B	β	t	VIF
Team trust	-.382	.169	-2.264*	1.974	.577	.461	5.387***	1.974	.243	.196	2.065*	1.974
Coach Trust	.210	.149	1.410	1.903	.014	.012	.148	1.903	.080	.072	.772	1.903
Co-work trust	-.070	.169	-.415	1.630	.229	.166	2.129*	1.630	.320	.233	2.703**	1.630
	R ² =.037 F=2.297				R ² =.338 F=30.351***				R ² =.188 F=13.703***			
Variable	Introjection regulation				Identification regulation							
	B	β	t	VIF	B	β	t	VIF				
Team trust	-.103	-.069	-.661	1.974	.361	.287	3.493**	1.974				
Coach Trust	.169	.125	1.229	1.903	.167	.147	1.826	1.903				
Co-work trust	.205	.124	1.313	1.630	.410	.295	3.946***	1.630				
	R ² =.032 F=1.946				R ² =.391 F=38.171***							

*p<.05 **p<.01 ***p<.001

지도자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신뢰요소는 내사조절을 예측하는데 3.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지도자신뢰, 동료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팀 신뢰요소는 동일시 조절을 예측하는데 39.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신뢰요소는 내사조절을 예측하는데 3.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지도자신뢰, 동료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팀 신뢰요소는 동일시 조절을 예측하는데 39.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The influence of team faith element on team performance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7. The influence of team faith element on team perform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Team performance			
	B	β	t	VIF
Team trust	.463	.301	3.133**	1.974
Coach Trust	-.044	-.032	-.338	1.903
Co-work trust	.307	.180	2.067*	1.630
		R ² =.168		F=11.961***

*p<.05 **p<.01 ***p<.001

팀 신뢰요소는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16.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팀 신뢰, 동료신뢰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The influence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on team performance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Table. 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기결정동기는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25.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통합된 조절, 내사조절이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influence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on team perform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Team performance			
	B	β	t	VIF
External regulation	.009	.009	.123	1.363
Internal regulation	.139	.113	1.229	2.059
Integrated regulation	.479	.386	4.399***	1.874
Introjection regulation	-.242	-.236	-3.200**	1.328
Identification regulation	.097	.079	.908	1.862
		R ² =.256		F=13.461***

p<.01 *p<.001

IV. Discussion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과의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각각의 요인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기대했던 바와 같이 팀 신뢰요소는 자기결정동기를 예측하는데,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팀 신뢰요소의 팀 신뢰 요인이 높으면 자기결정동기의 외적조절은 감소하지만 내적조절, 통합된 조절과 동일시 조절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자기결정동기가 외적조절과의 부적관계 그리고 내적조절과의 정적관계의 상반된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내적조절과 외적조절의 상호 대립적 견해가 있다는 주장과 연계성을 가진다 [14-16].

즉, 본 연구에서는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 요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가 자의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에 강요된 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팀 신뢰는 통합된 조절에도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Deci와 Ryan(2000)에 [12] 의하면 통합된 조절은 덜 내재화된 다른 종류의 외적 동기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 행동에 있어 통합된 조절은 자신에 의해 가치화된 결과를 위해 도구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만 내적동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팀 신뢰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팀 신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자신의 실력이나 발전의 성숙이 긍정적인 활동이라 인식하는 동일시 조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선, 허정훈(2012)과 [18] 허진영, 마혜영(2013)의 [9] 연구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팀 신뢰요소는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지도자 신뢰 요인이 팀 수행에 무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팀 신뢰의 팀 신뢰요인과 동료 신뢰요인이 높으면 팀 수행도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뢰의 요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Tzafirir & Dolan(2004)의[22] 연구에서도 선수와 선수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는 팀은 팀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지를 보이며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동료 신뢰가 높을수록 내적조절, 통합된 조절과 동일시 조절이 증가한다는 것은 팀 신뢰요인과 동일한 결과로 동료들 간의 높아진 신뢰와 만족은 궁극적으로 팀이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며, 이는 곧 팀의 효율성 및 수행으로 나타나게 된다[9]. 이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만족이 팀의 효율성과 수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23]. 반면 지도자와의 신뢰는 팀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코치의 신뢰가 팀 동료 간 신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Mach & Tzafirir(2010)의[24] 연구와 선수에 대한 지도자신뢰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25-26]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럭비종목의 특성상 경기 중에는 지도자의 개입이나 전략지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수들 간의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팀 주장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투철한 희생과 강한 협동이 필요한 팀 스포츠이기에 팀 수행에 있어 동료의 신뢰와 달리 지도자의 신뢰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

셋째,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동기는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적으로 자기결정동기가 외적조절, 내적조절, 동일시조절 요인이 팀 수행에 무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진, 박수현(2010)은[27] 통합적 조절은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개인의 다른 가치에 동화될 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럭비에서는 선수들이 연습과 경기 중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도 서로의 가치가 동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조절은 분열된 가치를 통일 할 수 있으며 이는 팀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팀 수행에 있어 내사조절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수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압력을 느끼게 되는 내사조절이 결국 팀 수행의 저하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성 동기가 팀 수행에 부정적임을 시사하는 선행연구[28-29]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경기진행에 있어 보다 즉흥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영향력이 큰 관련변수

임을 보여준다. 이는 럭비종목의 특성상 남자선수 및 단체종목에서 팀 만족이 수행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30], 운동수행력이 증가하므로 경기수행에 있어 정서적 준비, 자신감, 동기유발 요인, 집중력이 높아지므로 경기에 대해 더욱 몰입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함께 한다[31]. 또한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경기진행에 있어 자기결정동기가 부여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일정하게 조직 안에서 선수와 선수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므로 자신감이 생겨 팀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며 보다 집중적으로 경기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V. Conclusions and Suggestion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팀 신뢰가 외적조절에 팀 신뢰, 동료신뢰가 내적조절이 팀 신뢰, 동료신뢰가 통합된 조절에 팀 신뢰, 동료신뢰가 동일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럭비선수들의 팀 신뢰요소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팀 신뢰, 동료 신뢰가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가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통합된 조절, 내사조절이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체육학 분야에서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럭비선수들을 대상으로 팀 신뢰요소, 자기결정동기와 팀 수행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연구대상을 럭비선수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학팀과 실업팀 럭비선수들 간의 비교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럭비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팀 신뢰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팀 신뢰요소와 팀의 인지전략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팀 신뢰요소가 자기결정동기 및 팀 수행에 어떻게 관여되고 있는지 분석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공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나 중단적 연구방법을 함께 병행하여 수행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Rugby training for physical education leader, Korea Promotion Foundation, Korea Sports Science Institute, 2010.
- [2] E. Kramer, Possessing faith: Commodification, religious subjectivity, and community in a Brazilian neo-Pentecostal church. university of chicago 1999.
- [3] M. Mach, D. Simon and T. Shay The differential effect of team members' trust on team performance: The mediation role of team cohes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83. No. 3, pp. 771-794, 2010.
- [4] Costa, A. C. Work team trust and effectiveness. *Personnel review*, Vol. 32, No. 5, pp. 605-622 2003.
- [5] C. W. Langfred, Too much of a good thing? Negative effects of high trust and individual autonomy in self-managing tea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7, No. 3, pp. 385-399 2004.
- [6] J. Y. Huh, and H. Y. Ma, The Mediation Effect of Team Cohesion on between the Relationship Team Members' Trust and Team Performance in Pro Baseball Players: Using the Phantom Variable,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24, No. 4, pp. 156-158, 2013.
- [7] E. Y. Chen and M. J. Kim. Analysis of Causal Model on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and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ce Sports Participa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2. No. 1, pp. 579-592, 2014.
- [8] J. R. Hackman, The design of work teams. Inj. w. lorsch (ed.), *Handbook of organizational behavior*. pp. 315-342, 1987.
- [9] S. DeOrtentiis, P., K. Summers, J., P. Ammeter, A., Douglas, C., and R. Ferris, G. Cohesion and satisfaction as mediators of the team trust-team effectiveness relationship: An interdependence theory perspectiv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Vol. 18, No. 5, pp. 521-543, 2013.
- [10] H. C. Sung and J.W. Lee. The Influence of Multi-Dimensional Controlling Coaching Styles on Motivation for Athlete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Vol. 19, No. 4, pp. 162-179, 2011.
- [11] E. L. Deci, and R. M. Rya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1985.
- [12] E. L. Deci, and R. M.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 11. No. 4, pp. 227-268, 2000.
- [13] J. H.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hysical Education Flow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0. No. 5, pp. 173-183, 2011.
- [14] M. R. Lepper, D. Greene, and R. E. Nisbett, Undermining children's intrinsic interest with extrinsic reward: A test of the "overjustifica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8. No. 1, pp. 129. 1973.
- [15] T. M. Amabile.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 west view, 1996.
- [16] S. H. Park. The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of Needs, Motivation and Burnout: Application of Self-Determination Index and Single Indicator Latent Variable,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24. No. 1, pp. 97-111, 2013.
- [17] H. H. Choi and J. Y. Huh. Reexamination of Behavioral Activation and Inhibition Scale and Motivation for Self-determination in P-E Clas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1. No.5, pp. 229-241, 2012.
- [18] M.S. Kim and J. H. Huh. A Study on the Motivation for Continuation of Coaches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23. No. 2, pp. 117-130, 2012.
- [19] H. W. Jeon. A Study on the Correlations between Hotel Employees' Superior Trust, Organizational Trust, Group Cohes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 Vol. 24. No. 4, pp. 255-283, 2009.
- [20] B. G. Bak, J. U. Lee, and S. P. Hong. Reconstructing the classificatory pattern of Learning motivation proposed by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9. No. 3, pp. 699-717, 2005.
- [21] K. T. Dirks, Trust in leadership and team performance: Evidence from NCAA basketbal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5. No. 6, pp. 1004, 2000.
- [22] S. S. Tzafirir and S. L. Dolan, Trust me: a scale for measuring manager-employee trust.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the Iberoamerican Academy of Management*, Vol. 2. No. 2, 115-132, 2004.
- [23] B. Beersma, J. R. Hollenbeck, S. E. Humphrey, H. Moon, D. E. Conlon, and D. R. Ilgen, (Cooperation, competition, and team performance: Toward a contingency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6. No. 5, pp. 572-590, 2003.
- [24] M. Mach, S. Dolan, and S. Tzafirir, The differential effect of team members' trust on team performance: The mediation role of team cohes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83. No. 3, pp. 771-794, 2010.

- [26] M. y, Choi, C. S, Lee, and J. K, Yeo. The Effect of Dance sport Instructors Professionalism on Self Management, Instructors Trust and Coaching Efficienc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action, Vol. 52. No. 1, pp. 117~134, 2013.
- [27] M. S, Lee. Effects of coach confidence on athlete satisfacti on and perceived performance in throwe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9, pp. 4054~4060, 2011.
- [28] J. Yoo and S. H, Park. Analysis of the Self-determined Motivational Process Model in the Physical Education Contex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action, Vol. 49. No. 6, pp. 245~255, 2012.
- [29] E. H, Seo and E. K, Kim. The difference in self-regulated learning among motivational from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7. No. 2, pp. 395~407, 2013.
- [30] S. J, Park. The Relationships among Sport Weness, Team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Korean Athlete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17. No. 4, pp. 1~11, 2006.
- [31] D. Y, Cho and S. H, Um. Effects of Psychological Skill Training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Determining Performance Levels and Training-Related Stress in University Soccer Player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19. No. 4, pp. 1~20, 2008.

Authors



Jin-Wook Lee, Visiting Professor Ph.D. M.S. degrees in Physical Education from Dankook University. B.S. Korea University. LEE Ph.D.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xercise Prescription Rehabilitation, Dankook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ports medicine, exercise prescription, sports Rehabilitation.



Sung Soo Park received the B.S. in Physical Education. from Yongin University, Korea, in 2001 and the M.S. and Ph.D. degrees in Physical Education. from Dankook University, Korea, in 2004 and 2012, respectively Dr. Park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Leisure Sports at Suwon Women's University, Hwasung, Korea, in 2013.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Leisure Sports, Suwon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Marine sports industry, Development of marine contents, and Marine Sports Education.